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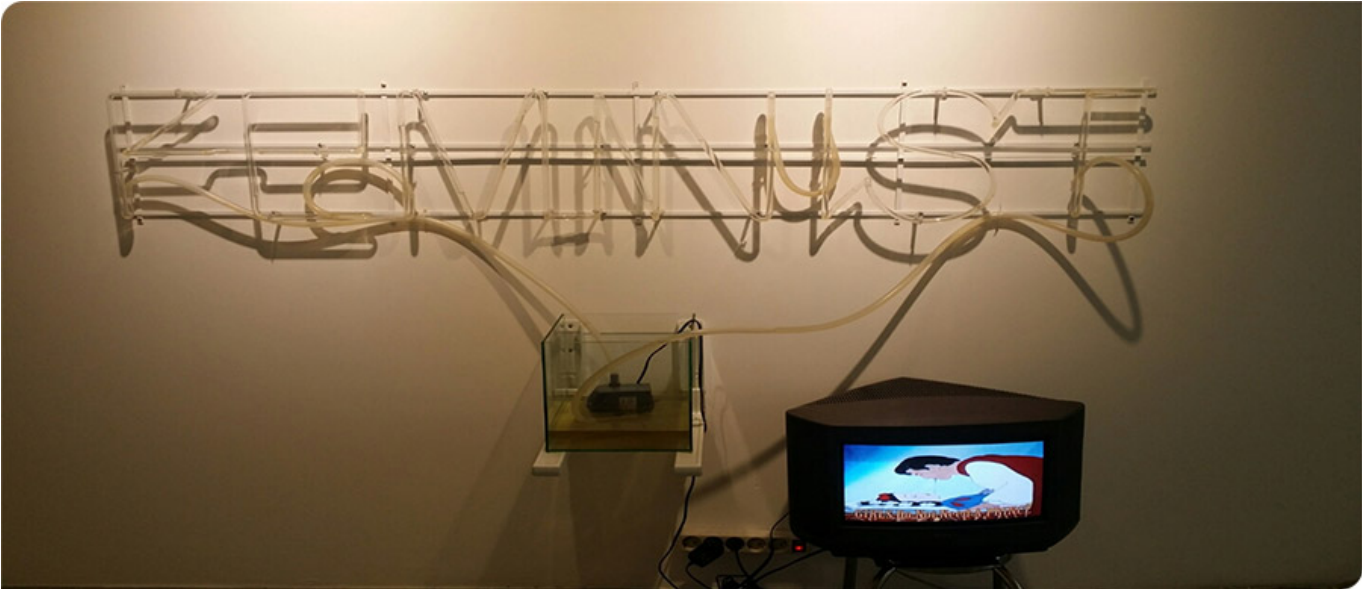


불완전한 인간
이탈 | 인세인박 | 박종영 | 송희정 | 김유석

2017.03.23^{Thu} _ 04.28^{Fri}

주 최 |  인천문화재단  우리미술관
후 원 |  예술가협회  화가협회  동양미술협회
장 소 | 우리미술관 전시관
문 의 | 032.764.7664

3월 23일부터 4월 28일까지 인천문화재단 우리미술관 전시관 ‘불완전한 인간’ 전시가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이철, 박종영, 송희정, 김유석 등 4명의 작가들이 참여한다. 이철은 ‘불완전한 인간’을 주제로, 불완전한 인간을 표현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박종영은 ‘인세인박’을 주제로, 인간과 박쥐의 경계를 모호하게 표현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송희정은 ‘이탈’을 주제로, 인간의 내면을 탐구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김유석은 ‘인간’을 주제로, 인간의 본질을 탐구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를 통해,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고, 인간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전시 관람료는 무료이며,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 관람객을 위한 장애인 관람객 할인도 실시한다. 문의는 032.764.7664로 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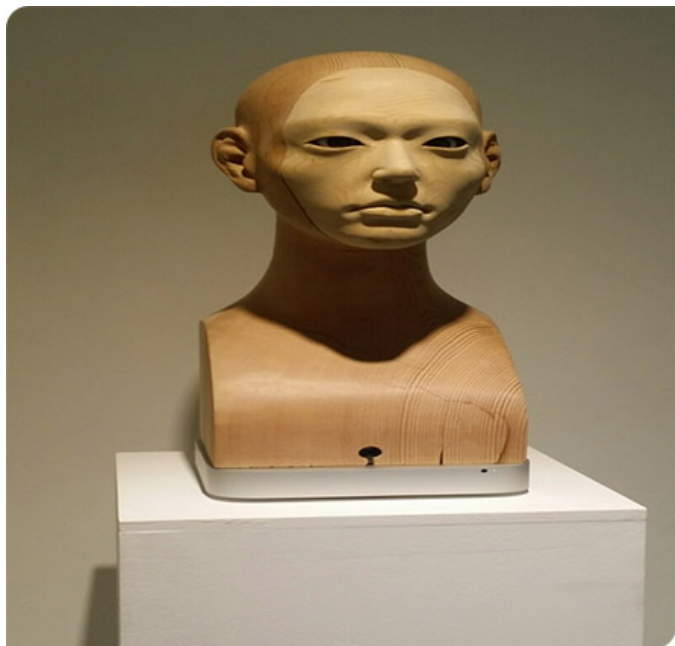
([Title], [Artist])

[Description text]



([Title], [Breath])

이 작품은 <Breath>로, 나무 조각으로 제작된 인형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인형의 눈은 닫혀 있으며, 입에는 붉은 꽃이 꽂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인형의 숨을 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작품, [Marionette-eye])

이 작품은 <Marionette-eye>로, 나무 조각으로 제작된 인형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인형의 눈은 닫혀 있으며, 입에는 붉은 꽃이 꽂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인형의 숨을 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작품, [This Work Has No Ideology])

이 작품은 <This Work Has No Ideology>로, 나무 조각으로 제작된 인형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인형의 눈은 닫혀 있으며, 입에는 붉은 꽃이 꽂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인형의 숨을 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